

# ‘온고지신 플랫폼’서 디자인에 눈을 뜬다

## 이제는 문화시민

### 선진예술교육현장 탐방

〈12〉 빅토리아 & 앨버트 미술관

런던=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영국의 수도 런던은 미술관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우수한 미술관이 많은 도시다.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대영박물관을 필두로 내셔널 갤러리, 테이트 모던 등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미술관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평소 미술관에 관심이 많은 전 세계 애호가들에게 런던은 꼭 가 보고 싶은 로망이자 문화도시다. <편집자 주>



빅토리아 & 앨버트 미술관 전경.

하지만 런던너(Londoner·런던 시민)들이 좋아하는 미술관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빅토리아 & 앨버트 미술관(Victoria & Albert Museum·이하 V&A)이다. 대영 박물관이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비해 인지도는 조금 낮지만 영국인들에게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장식 예술품(각종 공예품, 복식, 도자기, 미술품 등) 500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 예술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V&A는 영국의 전성기를 이룬 빅토리아 여왕과 그의 남편이었던 앨버트공(公)의 소장품을 기반으로 1852년 설립된 왕립박물관이다. 당시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를 둘러본 빅토리아 여왕 부부는 박람회 수익금으로 왕실의 소장품을 보관하는 미술관으로 출발한 후 증·개축을 거쳐 1909년 지금의 V&A로 간판을 바꾼 뒤 공식개관했다. 단순히 이름만 교체한 게 아니라 미술관의 목표도 바꾸는 대혁신이었다.

이 다른 박물관처럼 컬렉션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국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전진기지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서 제조업 분야에서 우위를 자랑했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일까. 한 번도 V&A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많지만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볼거리가 풍성하다. 이번 시리즈 취재차 처음 V&A를 방문한 기자 역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V&A는 런던 지하철 사우스 켄싱턴 역에 내려 미술관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된다. 모던한 분위기의 건축물로 둘러싸인 도로 옆에 우뚝 서 있는 19세기 고풍스런 건축양식이 관광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약 5만1000㎡의 면적과 6층 높이, 145개의 갤러리를 갖춘 미술관은 세계 최대의 장식예술 박물관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자가 방문한 날에는 15세기 르네상스 화가 산드라 보티첼리의 특별전 ‘보티첼리 리이매진’(The Botticelli Reimagined)이 열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보티첼리가 후세의 작가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에는 ‘비너스의 탄생’(1484년·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소장) 등 그의 대표 작품을 모티브로 한 오마주 작품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현대 팝아트 작가들의 작품들은 박제된 유물이 아닌 거장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었다. 실제로 10여 개의 갤러리에서 열린 특별전에는 어린이, 청소년 단체 관람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줄을 이었다.

‘보티첼리 리이매진’(The Botticelli Reimagined)은 V&A



500만 여점에 이르는 빅토리아 & 앨버트 미술관의 장식예술컬렉션은 다른 미술관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경쟁력을 자랑한다. 중학생들이 미술관에 전시된 페르시아 카펫의 문양을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다. <빅토리아 & 앨버트 미술관 제공>

### 1852년 왕실 소장품 미술관 출발 전 세계 장식 예술품 500만점 소장 컬렉션만 전시하는 박제된 공간 탈피 학생 도슨트 투어·체험 프로그램 등 영국 디자인 업그레이드 전진기지로

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시회다.

자칫 권위적이고 무거운 느낌의 예술품을 단순히 전시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활용하는 창작의 산실이다. 이를테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플랫폼인 셈이다.

이 같은 V&A의 미션에 날개를 달아준 동력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다.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미술관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적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무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각의 독특한 장식예술품들을 전시하는 상설전의 경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도슨트 투어에서부터 소장품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춘 가족 대상 아트 홀리데이 워크(Summer Holidays) 등 풍성하다.

문화예술교육의 키워드는 바로 창의성(Creativity)과 디자인(Design)이다. 과거의 예술품을 감상하는 소극적인 향유에서 머물지 않고 예술품으로부터 관람객 스스로 자신의 창의성을 발견하고 이를 일상 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30여 명으로 구성된 교육·마케팅팀은 ‘학교·가족·청소년 팀’, ‘대학생·성인·창의산업팀’, ‘디지털 학습팀’, ‘마케팅 팀’ 등 4개 부설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동목표는 소장품과 관객 사이의 간극을 좁혀주는 창의적 디자이너로서 프로그램 개발에 올인한다. V&A의 한해 방문객은 250만 여명. 이 가운데 매년 20만 여명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성과 미적 안목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이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레지던시와 디자인 랩,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jhpark@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취재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어린이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드레스를 입어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 “아트·디자인·퍼포먼스 우리 미술관의 다른 점”

사라 캠프벨 V&A 교육부 디렉터



“아트·디자인·퍼포먼스.”

V&A의 문화예술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 디렉터 사라 캠프벨(Sarah Campbell)은 다른 미술관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자칫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는 과거의 예술품(아트)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한 전시와 프로그램(Design)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미적 즐거움(퍼포먼스)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독 여성 관람객이 많은 것도 급속 공예나 복식, 생활용품 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모던한 감각을 끌어 내는 프로그램이 풍성하다는 것이다.

“V&A 소장품은 인상주의 미술품에 비해 요즘 세대가 선호하는 매력적인(appelling) 장르는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성인들이 이들 컬렉션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미적 안목을 높이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일반적인 전시회 설명 보다는 직접 그려 보거나 만들어 보게 하고 온라인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도록 노력합니다. 한해 평균 72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 전체 이용객 20만 가운데 9만 명이 학생들입니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열리는 ‘Friday Late’는 V&A의 대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벤트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관람객들은 미술관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공연예술가들의 최첨단 패션쇼와 영화, 설치미술,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사라 캠프벨 디렉터는 “내년에 개관하게 되는 부설 미술관의 경우 자원봉사자와 직원들로 구성된 고객응대팀(Welcome Team)을 미술관 곳곳에 배치해 복잡하기로 소문난 V&A 미술관의 시설을 관람객들이 보다 쉽게 둘러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런던=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 식사업무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